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

"적대적 M&A의 폐해"

동부그룹이 한농을 비롯 12개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인수하는데 일단 성공했다고 한다.
동부그룹은 지난 3월31일 열린 한정화학 주주총회에서 김응상 전사장을 경질하고, 손건래 동부화학 사장겸 한농 대표이사 부회장을 한정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우종일 동부화학 전무겸 한농 대표이사 부사장을 한정화학의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동부그룹은 2월말부터 시작한 한농과 12개 계열사에 대한 인수작업을 마무리하게 됐고 앞으로 농약, 접착제 등 동부화학이 계획해오던 CHEMICALS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한농을 비롯한 12개 계열사는 CHEMICALS부문의 사업이 대단히 안정돼 있고, 투자 여하에 따라서는 사업확장 및 고도화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동부화학은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누워서 떡먹는」 기업 인수에 성공, 부단히 노려오던 CHEMICALS사업을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또 경쟁관계에 있는 타 석유화학기업에 앞서 CHEMICALS사업에 진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80년대말 이후의 대규모 투자와 합성수지 공급과잉에 따라 고부가가치사업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CHEMICALS부문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이것은 페인트, 염안료, 계면활성제, 접착제, 첨가제, 세제등 CHEMICALS사업과 의약, 농약, 화장품 등 SPECIALTY CHEMICALS사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초유분 및 유도품을 활용해 사업을 계열화·고도화시킬 수 있으며, SPECIALTY부문은 사업전망이 좋고 유럽·미국 등의 다국적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 및 중국시장을 겨냥할 경우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부그룹의 한농 및 12개 계열사 인수로 인한 CHEMICALS사업 진출이 인수과정에서의 도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동부화학의 그동안의 사업추진과정이나 기업운영을 볼 때 과연 예상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그것은 동부화학이 SM 및 PS사업을 주력으로 비료를 일부 생산하고 있으나 CHEMICALS 및 SPECIALTY사업을 본격 추진해본 경험이 거의 없고, 기존 석유화학 및 비료사업마저도 경영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SM가격이 폭등, 일부 만회한 감이 없지 않으나 PS 및 EPS사업이 원료가 폭등으로 적자상태이며, 비료사업도 삼성그룹의 한국비료 인수로 인해 경쟁력이 바닥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 확장 및 고도화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에 첫번째 의문이 들고 있다. 동부화학이 한농을 편법으로 인수한 직후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NCC 및 BTX, CHEMICALS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창한 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가능성이 전혀 희박한 공염불일 따름이라는 것 쯤은「아는 사람은 다 아는」사실이다.
또 연구개발이 취약한 동부화학이 한농 및 계열사의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두번째 의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CHEMICALS 및 SPECIALTY부문의 연구개발은 5~10년으로도 특정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석유화학사업은 돈만 있으면 기술과 장치를 사올 수 있어 사업을 착수하기가 쉽고 신증설의 어려움이 없지만 CHEMICALS사업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셋째는 동부화학의 마케팅력이다. 지금까지 주로 범용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판매, CHEMICALS 제품에 대한 마케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한농의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기존 한농사원들의 동요도 마케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째는 동부그룹이 70년대 중동의 건설붐을 타고 성장한 기본 바탕을 전제하고 지금까지 건설업 운영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틀을 벗고 CHEMICALS사업을 정상화시키

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인력운영면에서의 미숙함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부와 한농은 과연 하나로 묶여질 것인가, 다시한번 묻고 싶다.

<화학저널 1995/4/10>